

M
842
7831h

碩士學位論文

*Hamlet*에 나타난 갈등구조의 시련과 극복

指導教授 梁 永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 暎 彬

1999年 2月

*Hamlet*에 나타난 갈등구조의 시련과 극복

指導教授 梁 永 洙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11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暎 彬

金暎彬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抄錄>

Hamlet에 나타난 갈등구조의 시련과 극복

金 映 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永 洙

Shakespeare 극이 보여주는 삶의 진실을 파악하는 문제는 곧 주인공들의 갈등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갈등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갈등문제가 잘 부각되어 나타난 Hamlet극을 고찰함에 있어서 이 작품의 특징인 빛과 어둠의 이미저리를 중심으로 등장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고뇌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선과 진실을 상징하는 빛과, 악과 허위를 상징하는 어둠이 표면과 이면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변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어서 작중 인물들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성격상의 이중구조가 빛과 어둠의 이미저리와 관련되고 외양과 실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끔 한다. 따라서 Hamlet이 대표하는 빛의 세계와 그의 주변 음모자들이 대표하는 어둠의 세계는 중첩되어 전체적인 빛과 어둠의 이중구조를 이룬다. 또한 Hamlet의 심리상태도 이중적 구조임은 마찬가지이다. 그는 내면적으로는 진리의 인식과 인격의 고결함과 의지의 정의로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적으로는 거짓으로 모른 척하고, 미친 척하고, 증오하는 척하기 때문에 내면적인 빛의 이미저리와 표면적인 어둠의 이미저리를 형성한다.

Hamlet에게 주어진 과제는 부친의 복수라는 단순한 문제이지만, 완벽한 논리와 철저한 성실성을 추구하는 그의 성격으로 인하여 복수의 문제로 시작된 그의 고뇌는 삶에 대한 번뇌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 대한 존경과 증오, 이성간 애정의 갈등, 군신관계에서 겪는 신의와 배신, 친구에 대한 진정한 우정의 고뇌 등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Hamlet이 무겁고 버거운 고뇌 과정을 거치면서 도덕적 가치의 난맥상을 극복하여 마침내 고귀한 자기희생으로써 정의의 숨겨진 힘을 확인시키고 화해와 평화의 미래에 희망을 걸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고고한 지성인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1999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II. 갈등구조의 양상	6
1. 이미저리 : 빛과 어둠	6
2. 인간관계 : 외양과 실재	21
III. 극복과 화해	37
IV. 결 론	51
참 고 문 헌	55
Abstract	57



I. 서 론

Shakespeare극의 특징중의 하나는 인간의 갈등문제가 대단히 박진감 있게 묘사되고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갈등관계가 거의 불가피하고 본질적인 운명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그런 관계로 Shakespeare극이 보여주는 삶의 진실을 파악하는 문제는 곧 주인공들의 갈등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갈등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작중 인물들 사이의 상호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동일 인물이 내면적으로 겪는 심리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같은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문제가 매우 복잡다단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작품 감상자의 개성에 따라 어느 방면의 갈등 문제가 더 중요하게 비쳐지는가 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Shakespeare는 본질적인 인간존재의 방식을 갈등 속에서 찾기 때문에, 그의 작품 전개의 특징은 단선적이고 도식적인 성격묘사나 피상적이고 평이한 심리묘사를 피한다는 점이며, 작중인물들이 보여주는 복잡미묘한 갈등관계와 다층적인 성격구조는 그 만큼 작품 이해를 어렵고 다양한 것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Hamlet*은 삶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이러한 갈등문제가 가장 잘 부각되어 나타난 작품이라는 것이 다수의 정평이다. 이 작품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숨돌릴 여유도 없이 음모, 흉계, 배신, 위장, 암투 등 인간행위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불길한 형태의 것들이 출현한다. 일상세계에서는 흔히 체험할 수 없는 극한상황 속에서, 선악과 호불호의 판단 기준이 흔들리고 인간의 존재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동안, 등장인물들이 겪는 내면적 고뇌와 상호간의 분류가 그칠 새가 없는 이 작품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번민을 가장 극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Hamlet*의 등장인물들이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겪는 근원적인 갈등과 고뇌는, 이러한 장중한 주제에 어울리는 고도로 상징적인 기법으로써 묘사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빛과 어둠의 “이미저리”(imagery)이다. 즉, 선과 악, 실체와 허구가 대치되고,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등 극한상황 속의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작가는 무대 분위기 형성에 큰 영향력이 있는 명암효과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들의 체험이 진전됨에 따라 달라지는 명암 이미저리의 변화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Hamlet 작품만큼 등장인물들 간의 대립 갈등구조가 등장인물들에게 가혹한 번민과 시련을 안겨줌과 동시에, 그 시련에 대한 극복 방안이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복잡미묘함이 더해지고 독자로서의 곤혹스러움이 가중되는 작품도 드물다고 할 것이다. 이 작품은 현실과 허구, 선과 악이 교묘히 뒤섞여 있어서 사건전개 양상과 주인공들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작품은 분명히 복수극에 속해 있으면서도 복수문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연되어 나타나고 주인공 Hamlet의 성격묘사에 강조점이 집중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덴마크 왕자 Hamlet의 성격문제 또한 독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주인공의 심리과정과 행동방식을 면밀하게 관찰할 때, 흔히 말해지는 관용구인 “햄릿적인”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사려가 깊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단순한 의미는 그 타당성을 상실해 버린다. 우유부단한 것 같다가도 때로는 비범한 행동력을 보여주고, 좌충우돌하면서도 강한 지향성이 있는 이 주인공의 성격은 바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타고난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하여 내면적인 정신력과 대외적인 추진력을 갖춘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자아낸다.

Hamlet 작품이 보여주는 이 같은 난해성을 가리켜서 Maynard Mack은 “모든 위대한 예술 작품에는 신비의 일면이 있는데, *Hamlet* 작품의 신비감은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다”(The first attribute that impresses us, I think, is

mysteriousness. We often hear it said, perhaps with truth, that every great work of art has a mystery at the heart; but the mystery of *Hamlet* is something else.)¹⁾라고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Mack의 짙막하고도 시사성 있는 표현은 사실상 숨겨졌던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 모든 위대한 문학작품의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이 작품이 그 주제와 분위기의 정체를 쉽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신비로움을 자아낸다는 의미의 논평은, John Dover Wilson의 코멘트에서는 좀더 재치 있고 비유적인 표현을 얻고 있다. 즉, “비평가들이 이 작품을 놓고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지만, 그들 사이에서 어떤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으며, 작가는 다만 이러한 다양한 해석의 재료를 제시했을 따름”²⁾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표현에서 보듯이, Shakespeare는 인간존재의 가치에 대한 번뇌와 주인공 성격의 진실에 대한 의문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대상황과 독자 개성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삶의 실체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유보한 채로 폭넓은 관찰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서두에서, *Hamlet* 극의 배경과 작중인물들이 지니는 중층적 의미 구조에 대한 예비적 해설을 위하여 “빛과 어둠”의 이미지리를 중심으로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선과 진실을 상징하는 빛과, 악과 허위를 상징하는 어둠이 표면과 이면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변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어서, 작중인물들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성격상의 이중구조가 “빛과 어둠”(Light and Darkness)의 이미지리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과 “외양과 실재”(Appearance and Reality)의 차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끔 한다. 따라서 Hamlet이 대표하는 빛의 세계와 그의 주변 음모자들이 대표하는 어둠의 세계는 중첩되어, 전체적인 빛과 어둠의 이중구조

1) Maynard Mack, "The World of Hamlet," *An Introduction to Literary Criticism*, ed., Marlies K. Danziger & W. Stacy Johnson (Boston: D. C. Heath & Co., 1968), p. 209

2) John Dover Wilson, *The Essential Shakespeare* (Cambridge: Cambridge Univ. P., 1964), p. 104.

를 이룬다. Hamlet 주변의 음모자들이 보여주는 독자적인 이중구조도 주의를 요한다. 그들은 표면에 나타나는 언행과 내면적인 의식의 실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빛의 이미저리와 심층적인 어둠의 이미저리라는 이중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Hamlet의 심리상태도 이중적 구조임은 마찬가지이다. 그는 내면적으로는 진리의 인식과 인격의 고결함과 의지의 정의로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적으로는 거짓으로 모른 척하고, 미친 척하고, 증오하는 척하기 때문에 내면적인 빛의 이미저리와 표면적인 어둠의 이미저리를 형성한다. 빛과 어둠의 이미저리의 이중구조는 작중인물들의 성격구조에서만 아니라, 작품 전체를 통한 사건전개의 방식과 극중 분위기, 작품의 물리적인 배경구성 등 여러 요소들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력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있다.

Hamlet이 다른 작중인물들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즉, Claudius, Polonius, Rosencrantz, Guildenstern 등에게는 도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Gertrude나 Ophelia같은 여성들에게는 경멸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Laertes나 Fortinbras와 같은 청년들에게 대해서는 경쟁적인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한편, 그의 친구 Horatio에게 대해서만은 남달리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 Hamlet은 자신이 죽어 가는 자리에서 이 막역한 친구에게 자신이 겪은 비극의 의미를 후세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까지 남기고 있다. Hamlet은 극중 모든 인물들과의 관련을 맺는 과정에서 고뇌와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Hamlet의 다층적 성격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삶에 대한 번뇌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 대한 존경과 증오, 이성간 애정의 갈등, 군신관계에서 겪는 신의와 배신, 친구에 대한 진정한 우정의 고뇌 등 그의 복잡다단한 성격은 상식적이고 단순한 이해력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는 결국 인간의 삶에서 가능한 최고 최대의 갈등을 겪고 나서 죽음의 운명을 당당하게 맞이하기 때문에 더욱 비장미를 느끼게 된다고도 말

할 수 있다.

Hamlet 작품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그 비장함과 심각함으로 인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의미확대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느끼게 한다. 주인공 Hamlet이 겪는 개인적인 체험은 사소한 언행의 조각들까지도 그것을 실마리로 하여 더욱 보편적인 인간문제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부친의 복수라는 비교적 단순한 문제이지만, 완벽한 논리와 철저한 성실성을 추구하는 그의 성격으로 인하여, 복수의 문제로 시작된 그의 고뇌는 삶의 진실에 관련되는 거대한 문제의 그물망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격이 된다.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에는 논리와 선의(goodness)의 무력함이라는 삶의 패러독스가 있고, 인간의 언어에 숨겨진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있고, 운명의 방향이 역전되는 비장함이 있다. 이 모든 문제가 햄릿적인 갈등과 고뇌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고, 이렇게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갈등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형상화시키는 매개체가 바로, 이 논문의 주안점인 “빛과 어둠”의 이미저리이다. Hamlet이 무겁고 버거운 고뇌과정을 거치면서 도덕적 가치의 난맥상을 극복하여, 마침내 고귀한 자기희생으로써 정의의 숨겨진 힘을 확인시키고 화해와 평화의 미래에 희망을 걸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고고한 지성인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 갈등구조의 양상

1. 이미저리: 빛과 어둠

Caroline F. Spurgeon이 “Shakespeare극에 나오는 은유와 직유의 표현들은 관찰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³⁾라고 말한 것처럼 *Hamlet*극에는 병과 부패의 이미저리 등 많은 이미저리가 나오고 있다.

이 극의 처음 장면부터 나타나는 “빛과 어둠”(Light and Darkness)의 이미저리는 극의 진행에 따라 모순적인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외면적인 대조로서 시각적인 효과로 나타나는데 Claudius를 중심으로 한 궁성과 그 외곽의 모든 것은 빛을 상징하고, 그러한 밝음 가운데 유일하게 Hamlet만이 어둠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는 극이 계속 진행함에 따라 극의 이면에 첫 번째의 명암과는 정반대로 실체와 허구라는 또 하나의 빛과 어둠이 교묘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표면적인 빛과 어둠과, 내면적인 빛과 어둠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미묘하게 얽혀 병행하는 과정을 각 장면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극의 개막 장면은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극의 상황이 대단히 응축되어 있다. 흑독하게 추운 한밤중을 배경으로 하여 초자연적 존재인 유령의 출몰과 공포로 떠는 보초병들의 모습, 노르웨이와의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불안한 덴마크 정국의 상황 등, 앞으로 심상치 않은 비극적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분위기에서 등장한 Horatio가 “저길 보게, 붉은 망토를 걸친 아침이 저편 동녘 산마루의 이슬

3) Caroline F. Spurgeon, *Shakespeare's Imagery and What It tells Us* (Cambridge: Cambridge Univ. P., 1961), p. 44.

을 밝으며 건너오고 있지 않은가.”(But look, the morn in russet mantle clad / Walks o’er the dew of yon high eastward hill., I . i . 171-72)라고 말하는 데서 의외로 밝은 분위기가 암시되고 있다.

이것은 비극이 잉태되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부터, 정화되고 순수한 세계로의 전환을 암시하고 어둠에서 새벽으로의 전환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장면이 바뀌는 궁정 장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음울하고 어두운 느낌을 주던 개막 장면과는 대조적으로 밝고 화려한 분위기이다. 이처럼 앞 장면과의 뚜렷한 대조는 화려한 궁정을 배경으로 하여 검은 상복 차림에 창백한 표정을 하고 있는 Hamlet의 시각적 어둠과 또 그의 내면적 어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생명이 넘쳐흐르는 궁정에서 오직 Hamlet만이 죽음의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⁴⁾는 Irving Ribner의 지적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Hamlet의 모습은 어둠 그 자체다.

그의 어둠의 근원은 첫 독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So excellent a king, that was to this
Hyperion to a satyr, so loving to my mother
That he might not between the winds of heaven
Visit her face too roughly. Heaven and earth,
Must I remember? Why, she would hang on him
As if increase of appetite had grown
By what it fed on; and yet within a month—
Let me not think on’t—Frailty, thy name is woman— (I . ii . 139-46)

태양신 히페리온(Hyperion)같이 고귀하고 기품 있던 아버지는 죽고, 괴물 사티로스(Satyr)같이 비열하고 간악한 숙부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말았다.

4) Irving Ribner, *Patterns in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ethuen, 1960), p. 69.

Hamlet은 어머니 Gertrude가 부왕이 살아 있을 때에는 그토록 깊은 사랑을 맹세했을 만큼 정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했건마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숙부와 근친상간의 재혼을 함으로써, Hamlet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을 받게된다. 이 때 Hamlet이 받은 충격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과 어머니의 성급한 재혼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도덕적인 가치의 혼란과 상실감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The situation in which Hamlet finds himself before he as yet knows anything of the murder is one in which the godlike man is dead and supplanted by the beastlike. And what is worse, his own mother has ceased to mourn Hyperion and taken the satyr-brother in his place, becoming worse than a beast herself. A beast that wants discourse of reason would have mourn'd longer.⁵⁾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Hamlet은 어머니가 선왕에 대한 애도를 것처럼 빨리 그만두고 동물적 욕망에 빠져든 것에 대해, 금수만도 못한 짓이고 악의 세력에 굴복한 것으로 여기며, 그로 인한 가치 상실에서 오는 무력감과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Hamlet에게 세상이란, 밝음의 빛은 온통 자취를 감추어 버린 어둠만이 가득한 황무지로 여겨진다. 이 칙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가 원하는 유일한 탈출구는 자살인데, 이 또한 신이 금한 계명 이므로 감히 수행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방황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Hamlet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선왕 햄릿(King Hamlet)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다. 또한 Hamlet의 숙부인 Claudius와 Hamlet의 어머니인 Gertrude의 결혼에 대해서조차, 다소 성급함을 인정하는 Horatio를 제외하고는 결코 의문을 갖거나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Hamlet

5) William Shakespeare, *Hamlet: The Arden Shakespeare*, ed., Harold Jenkins (London: Methuen, 1982), p. 130.

만이 “아버님의 혼령이 갑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만사가 심상치가 않구나. 필시 흉계가 있나 보다”(My father’s spirit—in arms! All is not well./ I doubt some foul play., I .ii. 255-56)라고 의심한다.

이로써 Hamlet은 점점 더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는 *Hamlet*극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괴리감을 한층 더 느끼게 된다.

Laertes가 파리로 떠나는 장면에서도 Hamlet에게는 부정적인 어둠이 스며들고 있다. Laertes와 Ophelia는 남매로서 이별의 정을 나누며 아쉬워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Hamlet과의 관계를 신중히 하라는 Ophelia에 대한 아버지와 오빠의 경고는, Ophelia와 Hamlet의 사랑에 대한 부정적이고 거짓된 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 Polonius는 딸 Ophelia에게 Hamlet의 접근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한다. Ophelia가 이 명령에 전혀 거부감 없이 순종함에 따라, Hamlet에 대한 의심과 어둠의 이미지는 더욱 가중되고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보초병들로부터 유령이 나타난 사실을 전해들은 Hamlet과 Horatio 두 사람이 등장하는 시각과 장소는, 개막 장면에서와 같이 음산한 어둠 속의 망루이다. Hamlet은 보초병들로부터 들은 유령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긴장된 모습으로 망루에 자리하고 있고, 궁정은 밤새도록 벌이는 술잔치로 왁자지껄한 활기찬 분위기에 휩싸여 있어서, 궁정 안과 밖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Hamlet은 덴마크인의 나쁜 술 습관을 비난하는데, 이러한 흥청망청하는 술잔치의 분위기도, 빛이 아닌 부패를 상징하는 어둠의 분위기와 연결되고 있다. 앞서 상실감과 허무감으로 인해 주위 세상을 어둠으로 가득 찬 부조리와 부패의 산실로 여기고 있는 Hamlet에게, 덴마크의 나쁜 술 습관은 국가를 부패시키는 어두운 병폐로 간주된다. Hamlet은 이런 나쁜 습관으로 인해 받게 되는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모욕은 면할 수 없으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사소한 결함 때문에 인격이 손상되고 만다고 한다.

This heavy-headed revel east and west
 Makes us traduc'd and tax'd of other nations—
 They clepe us drunkards, and with swinish phrase

 Soil our addition;
 So, oft it chances in particular men
 That for some vicious mole of nature in them,
 As in their birth, wherein they are not guilty
 (Since nature cannot choose his origin),
 By their o'ergrowth of some complexion,
 Oft breaking down the pales and forts of reason,
 Or by some habit, that too much o'erleavens
 The form of plausible manners—that these men,
 Carrying, I say, the stamp of one defect,
 Being Nature's livery or Fortune's star,
 His virtues else, be they as pure as grace,
 As infinite as man may undergo,
 Shall in the general censure take corruption
 From that particular fault. The dram of evil
 Doth all the noble substance offer dout
 To his own scandal. (I .iv. 17-37)

Hamlet이 이런 비난을 하고 있을 때 유령이 나타나고, 초자연적 존재인 유령에게 Hamlet은 완전히 압도당한 채 유령을 따라간다. 이 유령의 출현은 “이 덴마크라는 나라는 어딘가 썩어 있음.”(Something is rotten in the state of Denmark., I .iv. 90)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유령의 출현이라는 자연 법칙의 파괴가 곧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예고한다는 당시의 관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어둠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Hamlet과 만난 유령은 Claudius의 죄를 폭로하면서 Hamlet에게 복수를 명령한다. Claudius는 인류 최초의 살인 행위로 규정되어 저주받은 “형제 살해”(fratricide)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형수인 왕비와 근친 상간의 결혼을 했다고 암시함으로써, 추악한 죄의 본체를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령과 Hamlet과의 만남은 표면상의 빛과 어둠이 완전히 교차되는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령의 말을 통해서, 앞서 빛을 상징하던 궁정의 참모습은 추악한 어둠에 물들게 되고, Hamlet은 자신의 어두운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둠 속에서 참된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통찰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유령의 말의 진실을 확인하려고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방편으로 실성한 모습으로의 “꾸며낸 광증”(antic disposition, I. v. 180)의 액션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극도로 고조되었던 1막의 긴장된 분위기는 2막에 들면서 조금은 완화되는 느낌을 준다. Polonius는 참견하기 좋아하고 질질 끄는 듯한 특유의 말투로, Reynaldo에게 파리에 있는 아들의 행적을 염탐할 것을 지시하면서 설교를 통해 자신의 특기인 염탐의 방법을 장황하게 알려 준다. Polonius는 염탐행위가 마치 지혜로운 사람들의 당연한 행위인 양, 이를 합리화시킴으로써 앞으로 극이 진행됨에 따라 스스로도 염탐꾼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될 것임을 예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느슨한 분위기에서 Ophelia는 “자신이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에, Hamlet이 윗도리를 풀어헤치고, 모자도 쓰지 않고, 양말은 흙투성이에, 대님은 풀려서 발목까지 흘러내리고, 창백한 낮빛이 되어, 무릎을 덜덜 떨어대며, 마치 지옥에서 뛰쳐나온 듯 비통한 표정을 하고 나타나셨다”라고 아버지 Polonius에게 말하는 장면은 완화되어 있던 극을 다시 긴장된 분위기로 몰아 넣는다.

My lord, as I was sewing in my closet,

Lord Hamlet with his doublet all unbrac'd,
 No hat upon his head, his stockings foul'd,
 Ungarter'd and down-gyved to his ankle,
 Pale as his shirt, his knees knocking each other,
 And with a look so piteous in purport
 As if he had been loosed out of hell
 To speak of horrors, he comes before me. (II. i. 77-83)

이러한 Hamlet의 모습은 Ophelia를 대단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만든다. Polonius는 이런 Hamlet의 변모가 “바로 그 상사병”(the very ecstasy of love, II. i. 102)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정지음으로써 Hamlet의 광증의 원인을 완전히 오판한다. 우리는 아직 이 장면까지는 “햄릿의 변모”(Hamlet's transformation, II. ii. 5)가 실연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극을 통해 그가 보일 “꾸며댄 광증”(antic disposition, I. v. 180)을 예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위와의 고립에서 이제는 그가 Ophelia를 포함한 주변 세계와 더 높고 두터운 고립의 벽을 쌓겠다는 것인지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검은 상복 차림이 상징하는 내적 어둠이, 이제 완전히 흐트러진 광인의 옷차림으로 이어진 것은 Harold Jenkins가 “Hamlet은 유령에게서 부여받은 복수의 사악한 영향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잔인 무도한 복수의 열정에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There are times indeed when the hellish influence is dominant and Hamlet gives himself over to cruel and vengeful passions.)⁶⁾라고 지적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부터 Hamlet은 본격적으로 꾸며댄 광증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노르웨이에 파견된 외교 사절의 귀환과 더불어 덴마크를 감싸던 전쟁의 위험성은 사라지게 되어, Hamlet의 광증만 없으면 궁정은 아무런 근심 없는 지극히 평화

6) Shakespeare, *Hamlet*. ed., Jenkins. p. 156

롭고 정상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Hamlet은 “꾸며낸 광증”을 도구 삼아서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어둠의 감정을 흐트러진 옷차림과 행동, 신랄한 말투로 표출시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한다. 화려하고 밝았던 궁정은 놀라움과 당혹감과 근심으로 가득 차고, 주위 사람들의 모든 촉각은 실성해버린 Hamlet에게 집중되어 그 원인을 알아내려고 한다.

한편, Hamlet은 Horatio를 제외한 인물들의 부정적이고 모순된 면을 뛰어난 통찰력과 신랄한 말투로 거침없이 파헤친다. 그리하여 Hamlet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교묘한 화술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본심을 알아낸다. 학우인 Rosencrantz와 Guildenstern과의 대화 장면에서, 두 사람은 Hamlet의 궤변적 화술에 휘말려 결국 왕의 사주를 받고 왔음을 실토하고 만다. 그러나 Hamlet은 자신이 극도의 우울 상태임을 밝히기는 하지만, Claudius가 그들을 통해 알아내려고 하는 “꾸며낸 광증”의 이유는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다. 두 학우에게 그의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천체관과 회의적인 인간관을 표출하고 있을 때에, 배우들의 도착 소식을 듣게 된 Hamlet은 생기를 띠며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는 Hamlet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 과장하고 즐기는 능력, 즉 근본적으로 배우와 같은 성질”(a nature essentially histrionic, a capacity to enjoy and to exaggerate whatever happens to him)⁷⁾의 소유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극이란 기능은 인간의 내면적 고통과 실체를 배우라는 제2의 인물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우울, 도피, 자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의 내면의 어둠 속에 잠재해 있던, Hamlet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잠시 밝은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Claudius와 Gertrude도 Hamlet을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Hamlet은 인간 존재의 문제 자체에 대하여 고뇌한다. Hamlet이 배우들을 만나 즐거운 기색을 보였다는 보고를

7) Robert Speaight, *Nature in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Collier Books, 1955), p. 36.

들은 Claudius는 Hamlet의 관심을 외부로 향하게끔 하고, Gertrude는 Ophelia의 미덕과 아름다움을 통하여 Hamlet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위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Hamlet은 어두운 마음 상태에서, 빛의 요소는 모조리 외면한 채 더욱 고통스러워하면서, 제3의 독백에서 그는 “죽는 건 잠자는 것. 그뿐 아닌가. 잠들면 없애 준다. 마음과 육체에 따라붙는 무수한 고통을!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열렬히 바라는 결말이 아닌가. 잠들면 어찌면 꿈을 꾸겠지. 아! 그게 괴로운 일이겠지. 이 세사의 번뇌를 벗어나 죽음 속에 잠든 때에 어떤 악몽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 때문에 결국 괴로운 생애를 그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죽은 뒤에 밀어닥칠 두려움과 한번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미지의 나라가 사람의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으로 뛰어드느니 차라리 익숙한 이승의 번뇌를 감내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누가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괴로운 인생을 신음하며 진땀을 뺀 건가?”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To die—to sleep,
 No more; and by a sleep to say we end
 The heart-ache and the thousand natural shocks
 That flesh is heir to: 'tis a consummation
 Devoutly to be wish'd. To die, to sleep;
 To sleep, perchance to dream—ay, there's the rub:
 For in that sleep of death what dreams may come,
 When we have shuffled off this mortal coil,
 Must give us pause—there's the respect

That makes calamity of so long life.

.....

Who would fardels bear,

To grunt and sweat under a weary life,

But that the dread of something after death,

The undiscover'd country, from whose bourne

No traveller returns, puzzles the will,

And makes us rather bear those ills we have

Than fly to others that we know not of? (III. i. 56-82)

Hamlet은 “사느냐 죽느냐”(To be, or not to be)를 “삶을 참고 견디어 나가느냐 삶에서 도피하느냐”(To endure life, or to escape from life)의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죽음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제는 종교적인 면에서 자살을 죄악시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보다는 “죽음 뒤의 어떤 두려움”(the dread of something after death)때문에 죽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Hamlet의 의식을 L. C. Knights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Life, 'this mortal coil', is at best something which hamper and impedes, imposing 'fardels' under which he 'grunt' and 'sweat';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the thousand natural shocks', and 'the whips and scorns of time' present it as an actively hostile force; and in 'a sea of troubles' the power that it has to inflict pain is felt as continuous and irresistible like the sea.

Death, on the other hand, is presented simply as a relaxing of tension

and abandonment of the struggle. The reiterated 'sleep', the smoothing 'quietus', and the smooth and weighted 'consummation' make plain why death is so ardently desired by a spirit which, whether 'suffering' or 'opposing', feels itself continually on the defensive against a world conceived as entirely hostile.⁸⁾

곧 이어 Ophelia와 만나는 장면에서, Hamlet은 자신을 포함한 인류의 존재 가치를 회의적으로 보며,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결혼과 자식양육”(marriage and procreation)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Ophelia에 대한 사랑을 공공연하게 거부한다. Harold Jenkins는 그러한 “결혼과 자식양육”의 부정은 곧 인간 본성의 부정이며, 유령이 Hamlet의 천성(nature)에 호소하던 명령, 즉 “네게 천륜의 애정이 있다면 잊지 말라.”(If thou has nature in thee, bear it not, I. v. 81)라는 복수 명령에 대해 이를 부인하며, 죽기를 갈망하는 것은 Hamlet이 복수 의무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It is a life in which he must yet is reluctant to participate. He longs for death, refuses marriage and procreation, his nature resistant to what nature wills. This, I think, is the fundamental conflict the play exhibits in Hamlet; and it is a conflict which accords with his neglect to perform his destined task.⁹⁾

Hamlet은 “우리 이제 결혼 같은 거 해선 안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딱 한 쌍만 빼놓고선 도리 없이 살려 두지만 결혼 안한 사람들은 현재대로 살아가는 게 무사할 거야.”(I say we will have no mo marriage./ Those that are

8) L. C. Knights, "Hamlet and Death," *Hamlet*, ed., John Jump (London: Macmillan, 1970), p. 155.

9) Shakespeare, *Hamlet*, ed., Jenkins. p. 157.

married already—all but one— shall live;/ the rest shall keep as they are; III. i. 149-51)라고 말하면서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본심을 충동적으로 털어 놓게 된다. 이를 엿듣고 있던 Claudius는 Hamlet의 우울증의 원인이 단지 아버지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Hamlet은 걱정을 이겨내지 못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진심이 드러나, Claudius로 하여금 그의 “꾸며낸 광증”을 의심케 하고 경계심을 갖도록 하여 복수를 더 어렵게 만든다. Hamlet은 이제는 복수 자체보다는 삶과 죽음의 번뇌에 빠져, 은연중에 복수의 의무를 포함한 삶의 의무까지도 포기하려는 인상을 준다.

Hamlet의 이러한 정신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Hamlet*극의 전체적 의미를 상징하는 “극중극”(play-in-play)이 상연됨으로써, Hamlet은 Claudius의 죄의 완벽한 증거를 포착하게 된다. Hamlet의 지시에 의해 Claudius 앞에서 펼쳐진 “곤자고의 살해”(Murder of Gonzago)의 극중극은, 유령에 의해 폭로된 “형제살해”(fratricide)가 사실임이 입증되고, Hamlet은 부왕 살해의 범인으로 Claudius를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Hamlet은 정작 복수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상태에만 빠진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는 왕을 발견했어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으로 보낼 기회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할 뿐, 그냥 지나쳐 버려 복수의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만다. 따라서 실체와 허구의 참모습에 대하여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Hamlet이, 이 기도 장면에서 Claudius의 기도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전혀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만다. 결국 명백한 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Claudius를 살려 둬으로써, 장차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전개되어 Hamlet 자신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Hamlet은 이 장면에서 “Claudius 저자가 기도하며 영혼을 깨끗이 씻고 승천할 차비 중에 죽여 버리는 것이 내가 원했던 복수란 말인가? 왕이 취해 잠들어 있거나 노여움에 떨 때나 이불 속에서 불륜의 쾌락을 탐닉할 때나 또는 도박을 하든 폭언을 뱉든 아니면 구원조차 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

을 때에 저승길로 떠나 보내자. 그러면 저잔 발뒤꿈치로 천당을 차버리고 곧 두박질해 검게 그을린 영혼이 되어 깜깜한 지옥으로 떨어질 게 아닌가.”(. . . And am I then reveng'd/ To take him in the purging of his soul/ When he is fit and season'd for his passage?/ / When he is drunk asleep, or in his rage/ Or in th'incestuous pleasure of his bed/ At game a-swearing, or about some act/ That has no relish of salvation in't/ Then trip him, that his heels may kick at heaven/ And that his soul may be as damn'd and black/ As hell, whereto it goes., III.iii. 84-95)라고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너무 지나치게 숙고한 나머지 왕을 파멸시킬 기회를 놓친 Hamlet은 Polonius를 왕으로 오판하여 살해하고 만다. 이로써 극의 주도권은 완전히 역전된다. 즉 “극중극” 장면을 통해서 부친 살해의 범인으로 Claudius를 확인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Polonius의 살인으로 Hamlet은 오히려 살인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다. Claudius는 Hamlet을 영국으로 추방하고 Hamlet은 복수의 기회를 차단 당한다. 다시 말하자면 궁정의 핵심으로서 표면적으로 빛을 상징하던 Claudius는 Hamlet에 의해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Hamlet은 아직까지 자신의 내면적인 어둠으로 말미암아 악의 제거에 실패하고, Polonius를 살해함으로써 “극 내내 그를 사로잡고 있던 죽음이 이제는 불가피한 현실로 대두되게 된다.”¹⁰⁾

4막부터는 극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진다. Polonius의 죽음에 대한 처리와 후유증으로 궁정은 대단히 산란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아들의 죄를 변호하려는 어머니 Gertrude의 노력, 그리고 그녀에게서 나오는 한숨과 탄식, Claudius가 받은 충격과 경악, 시체를 찾아 헤매는 궁정인들의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궁정이 어둠의 본성을 드러내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Polonius의 살해에 대한 Hamlet의 반응에서도 그의 냉소적인

10) Ribner, *Patterns in Shakespearean Tragedy*. p. 79.

캐변이 절정에 달하여 극의 분위기를 기묘하게 이끌어 나간다. 드디어 Claudius는 Hamlet을 급히 영국으로 추방하면서 봉납한 친서에 Hamlet을 살해할 것을 명시한다. Hamlet은 Claudius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지만, “그러한 의도들을 아는 지품천신이 눈에 선합니다. 자 가자, 영국으로!”(I see a cherub that sees them./ But come, for England., IV.iii. 51-52)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영국으로 보내려는 왕이 무엇인가 간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러나 영국으로 추방당하는 처지에 놓인 Hamlet은 지금의 상황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 막다른 입장이다.

영국으로 배를 타러 가던 중 폴란드 지방을 공격하기 위해 진격하는 Fortinbras 군대를 보게 된다. Hamlet은 사소한 일, 즉 “한 줌의 땅”(a little patch of ground, IV.iv. 18)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우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는 복수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미루어 왔던 자신을 힐책하며 충격을 받는다.

어둠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짙어만 가는데, 아버지의 죽음과 사랑하는 연인의 광기에 고통을 받고 있던 Ophelia는 실성하여 물에 빠져 죽고,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을 은폐하려는데 분개하던 Laertes는 Claudius의 계략에 넘어 간다. Claudius는 더욱 더 타락하여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악의 화신이 되어 버린다. Polonius 살해 이후 “내 핏속에서 소모열병처럼 성가신 존재”(the hectic in my blood, IV.iii. 69), “번영과 평화가 지나치면 이런 종기가 생기는 법”(th'impostume of much wealth and peace, IV.iv. 27), “병든 내 영혼”(my sick soul, IV.v. 17), “깊은 슬픔이 초래한 독소”(the poison of deep grief, IV.v. 75)같은 용어들이 풍기는 음울한 분위기로 극은 칠혹 같은 어둠의 절정을 향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5막의 “무덤 장면”으로 인하여, 이전의 비극적인 분위기와는 이질적인 희극적인 양상을 띠므로써 극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부지해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Hamlet은, 극의 시작부터 입고 있던

검은 상복과 광인의 옷차림에서 이제는 “선원의 복장”¹¹⁾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의복의 변화는 Hamlet에게 있어 그의 마음 상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즉 지금까지 줄곧 그를 번뇌하게 했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만큼, Hamlet은 성숙해지고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란 이전의 불안, 공포, 파멸 등을 암시하던 어둠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맞이해야 할 당연한 조건으로 순화되었다.

Thus ready for the death which completes life's universal pattern, he is also reconciled to the pattern of life which death completes. For he now perceives in the universe, embracing all its apparent good and evil, a supreme if mysterious design.¹²⁾

따라서 극의 대부분을 어둠과 죽음의 절정을 향해 치달던 극은 Hamlet이 관조의 경지에 올라서는 5막부터 서서히 빛을 회복한다. 즉, 어둠의 세계가 빛의 세계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 즉 부왕 살해에 대한 복수의 실행으로 끝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손실이 큰 것이다.

지금까지 극 전체를 통해서 다양한 빛과 어둠의 이미저리가 Hamlet의 내적·외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덴마크라는 국가와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교차되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극이 개막 장면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빛의 상징이던 궁정과, 어둠의 상징이던 Hamlet이 극이 진행됨에 따라 표면적인 빛 뒤에 숨어 있던 어둠의 실체가 Hamlet에 의해 드러나, 외관상의 빛이 허위임이 드러나고 결국 Hamlet에 의해 다시금 진실의 빛이 회복되고 있다.

11) Mack, "The World of Hamlet," *An Introduction to Literary Criticism*. ed., Danziger & Johnson. p. 222.

12) Shakespeare, *Hamlet*. ed., Jenkins. p. 157.

2. 인간관계: 외양과 실재

어느 시대의 문학 작품이건 주인공의 주관적인 견해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Hamlet만큼 두드러지게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마 드물 것이다. 이러한 Hamlet의 주관성은 그를 주위 세계와 격리시키는 주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긴 거리감은 그가 주위를 관찰할 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커다란 방해가 된다. 여기에서는 Hamlet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인물들과의 성격상의 이중성을 논해 보고자 한다. 그들은 Hamlet의 주관적인 시각으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모습 또한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따라서 각 등장 인물들의 이중적인 성격과 “외양과 실재”(Appearance and Reality)의 불일치는 Hamlet 극의 이중성의 대립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Hamlet은 그 스스로도 자신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의 주관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즉 Hamlet은 개인의 생각 여하에 따라 모든 가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덴마크는 최악의 감옥이지. . . . 훌륭한 감옥이지. 격리실도, 독방도, 지하감방도 다 있지만 덴마크만큼 고약한 감옥은 어디에도 없지.”(Denmark's a prison./ / A goodly one, in which there are many confines,/ wards, and dungeons, Denmark being one o'th' worst, II. ii. 243-47)라고 밖에 여기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주관주의는 Hamlet으로 하여금 주위 세계와 넘을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장벽을 만들어, 건전하고 합법적인 복수 방법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그를 고립시킬 뿐이다.

우선 Hamlet과 Claudius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당한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다. Hamlet은 Claudius를 평가할 때면 언제나 자신의 아버지였던 선왕(King

Hamlet)과 비교를 한다. 아버지는 태양신인 히페리온(Hyperion)과 같은 고상한 인물로, 숙부는 사티로스(Satyr)와 같은 반인 반수의 괴물로 표현하는데, 이 두 사람의 비교는 3막 4장에 와서 극에 달한다. Hamlet은 나란히 걸린 두 형제의 초상화를 비교하면서 “어머님이 아름다운 산의 먹이도 풍부한 숲도 버리고 이 수령에 내려와서 눈을 붙혀 먹이를 찾으시다니. 과연 눈이 있으십니까?”(Could you on this fair mountain leave to feed / And batten on this moor? Ha, have you eyes?, III.iv. 66-67)라고 말하는데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두 사람의 차이가 명백한데 어찌하여서 그녀가 변심했는지, 도대체 그런 어머니의 행위에 대해서 Hamlet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나 극의 서두에 나타난 Claudius의 모습은 Hamlet이 바라보는 부정적인 견해와는 아주 상반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평화주의자이자 지혜와 인자함을 갖춘 존엄하신 왕으로 존경받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Wilson Knight의 지적에 의하면,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풍부한 인간미를 지닌 Claudius와 비교할 때 오히려 Hamlet이 과도한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보인다는 것이다.

That Hamlet is originally blameless, that the King is originally guilty, may well be granted. But, if we refuse to be diverted from a clear vision by questions of praise and blame, responsibility and causality, and watch only the actions and reactions of the persons as they appear, we shall observe a striking reversal of the usual commentary.

.....

Now Claudius is not drawn as wholly evil—far from it. We see the government of Denmark working smoothly. Claudius shows every sign of being an excellent diplomatist and king.¹³⁾

13) G. Wilson Knight, "The Embassy of Death: An Essay on Hamlet," *Hamlet*, ed., Cyrus Hoy (New York: W. W. Norton & Co., 1963), pp. 186-87

하지만 악인이 끝까지 선인의 위장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선자로서의 Claudius의 본 모습은 Polonius가 “신앙심 두터운 표정을 짓고 경건한 행동을 꾸미면서 악마의 본성에 사탕발림을 해주는 것이니라.”(. . . that with devotion’s visage/ And pious action we do sugar o’er/ The devil himself., III. i. 46-47)라고 말한 뒤에 나오는 그의 방백이나 기도장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만다.

O 'tis too true.

How smart a lash that speech doth give my conscience.

The harlot’s cheek, beautied with plast’ring art,

Is not more ugly to the thing that helps it

Than is my deed to my most painted word.

O heavy burden! (III. i. 48-54)

이러한 방백은 Hamlet에 앞서 관중들로 하여금 왕의 죄를 확인케 하는 동시에, 위선자 Claudius의 참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Claudius는 죄를 안은 채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궤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권세욕과 소유욕이 양심의 가책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 거쳐야 할 회개의 과정을 대신 포기한다.

'Forgive me my foul murder?'

That cannot be, since I am still possess'd

Of those effects for which I did the murder—

My crown, mine own ambition, and my queen.

May one be pardon'd and retain th'offence? (III.iii. 52-56)

이처럼 Claudius는 극의 초반부에 나타난 그의 인간적인 매력으로 말미암아 실체와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듯이 Claudius가 얼마나 치밀하고 명석한 위선자였는지는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다. 다음과 같이 I. Ribner는 Claudius의 위선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One of the traditional aspects of evil - mirrored in the vice of the Medieval morality plays - was false appearance. Evil, like Claudius may look attractive, but inwardly it is foul and rotten.¹⁴⁾

Claudius에 대한 Hamlet의 관점과 극에 나타난 덴마크 왕으로서의 Claudius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나, 극이 진행됨에 따라 Hamlet의 평가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Gertrude의 경우를 살펴보자. Gertrude의 재혼 이후 그녀를 바라보는 Hamlet의 시선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찬다. 음탕한 욕정에 사로잡혀 숙부와 근친상간의 결혼을 한 Gertrude는 Hamlet에게는 허위에 찬 부도덕한 인물로 변하였다. 어찌면 간통뿐만 아니라 살해에도 가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머니를 “오 참으로 해로운 여자로다!”(O most pernicious woman! I.5. 105)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극을 자세히 살펴볼 때 Gertrude는 중년 여성의 음탕한 욕정에만 사로잡혀 부도덕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Claudius가 “Hamlet의 모친인 왕비는 Hamlet의 모습만 봐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The Queen his mother / Lives almost by his looks., IV.vii. 11-12)라는 말에서처럼, 그녀는 강한 모성애로 가득 찬 깊은 사랑을 Hamlet에게 보낸다. Ernest Jones는 Gertrude가 아들 Hamlet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욕욕에 빠져드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4) Ribner, *Patterns in Shakespearean Tragedy*. p. 89.

The presence of two traits in the Queen's character accord with this assumption, namely her markedly sensual nature and her passionate fondness for her son.¹⁵⁾

특히 4막 1장에서 Polonius를 살해한 Hamlet을 변호하는 장면에서는 더욱 강한 모성애를 지닌 그녀의 모습을 알 수 있다.

Mad as the sea and wind when both contend
Which is the mightier. In his lawless fit,
Behind the arras hearing something stir,
Whips out his rapier, cries 'A rat, a rat',
And in this brainish apprehension kills
The unseen good old man. (IV. i. 7-12)

또한 Ophelia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며 두 사람의 결합을 진심으로 바라기도 한다. 이처럼 Gertrude의 음탕한 욕정과 모성애는 애매 모호하게 그녀의 내면 속에 얽혀 있어서, 명확한 성격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또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성격의 이중적 양상이다.

Claudius와 Gertrude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Polonius에 대한 관점 역시 Hamlet에게는 부정적이다. Hamlet은 줄곧 Polonius를 “fishmonger”(II. ii. 174), “These tedious old intruding fool”(III. iv. 31)로 표현하는 등, Polonius의 허식적인 면을 공격한다. 그러나 Polonius는 참견하기 좋아하고 친박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악인은 아니었다. 그는 “The father of good news”(II. ii. 42)이기도 하며 비록 Ophelia를 미끼로 이용하지

15) Ernest Jones, "Hamlet and Oedipus," *Hamlet*, ed., John Jump (London: Macmillan, 1970), p. 53.

만 Laertes와 그녀에게 쏟는 관심과 애정은 교훈이나 경구를 통해 계속 나타난다. Polonius가 비록 Claudius의 편에 서서 염탐 행위를 하며, 결국 그 행위로 말미암아 Hamlet에게 살해당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가 악인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으며, 그도 또한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에 불과하다.

우리가 *Hamlet*극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Hamlet과 가장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는 인물은 아마 Ophelia일 것이다. Ophelia와의 사랑은 “복수”(revenge)라는 이 극의 중심 문제와 별개의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이 둘은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다. Hamlet은 재혼한 어머니와, 아버지 Polonius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고의로 Hamlet의 사랑을 부정하는 Ophelia로 말미암아, 여성 전체에 대한 혐오감을 그는 느꼈을 것이며, 그 비난의 화살은 Ophelia에게로 향하고 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일지라.”(Frailty, thy name is woman., I. ii. 146)는 Hamlet의 말이 비록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Ophelia 또한 연약한 여인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Hamlet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Ophelia의 Hamlet에 대한 사랑의 거부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라면, Hamlet의 경우는 그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사랑의 거부가 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Hamlet의 사랑의 거부는 곧 “결혼과 자식양육”의 부정이며, 또한 햄릿의 인간 본성에 호소하던 유령의 복수 명령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사랑과 복수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amlet의 주관적인 판단은 등장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전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고립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들 또한 각자의 주관에 따라 Hamlet의 “꾸며낸 광증”을 평가하고 있다. 다음의 Polonius, Gertrude, 그리고 Claudius 각자의 Hamlet의 “꾸며낸 광증”에 대한 해석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Polonius는 Hamlet의 광증이 Ophelia에 대한 “상사병”(ecstasy of love)과, 자신의 명령에 의해 Hamlet의 사랑을 고의로 거부하는 Ophelia에 대

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여긴다. Gertrude는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재혼 때문이라고 규정지어, Hamlet이 “꾸며댄 광증”을 나타내기 이전의 우울의 원인에 조금은 접근하고 있다. 한편 Claudius는 자신의 비열한 비밀을 Hamlet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초조감으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Hamlet의 광증이 위장된 행위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Claudius만이 유일하게 예사롭지 않음을 어렵듯이 느끼고 있을 따름이다. Hamlet이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써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꾸며댄 광증”이 과연 그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Harry Levin의 다음 설명에 의하면 그 효과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This 'crafty madness' provides him with a means of expressing pent-up emotions, which are communicated to the audience through asides and soliloquies, but which can find no release until they reach the other characters through a sequence of sharply pointed contempts.

In short, it is axiomatic with Hamlet's successors that the honest man can hardly survive to perform his mission at court, unless he disguise his personality with a mask of some sort, preferably foolish.¹⁶⁾

Hamlet은 “꾸며댄 광증”을, 복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억눌린 감정의 발산, 살의에 찬 본심의 은폐, 신변상의 안전 도모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Hamlet의 광증의 행동은 결코 복수와 연결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수의 장애 요소가 되어 그것을 핑계삼아 복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일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Hamlet의 주관적 시각과 객관적인 시각의 대조를 통해, 각 등장 인물들의 성격상의 이중성과 모순된 속성을 살펴보았다. 서로 분열된 각자의

16) Harry Levin, "The Antic Disposition," *Hamlet*, ed., John Jump (London: Macmillan, 1970), pp. 124-31.

관점으로 사물을 평가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물의 개성이 너무 뚜렷이 드러나 작품의 정확한 이해에 어려움을 준다. 그러나 Claudius를 제외한 각 인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중적 성격 중에서 부정적, 허식적, 비도덕적인 면을 압도하는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면의 부각은, 진실의 승리라는 보편적 원칙의 또 다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이중적인 성격은 인간이면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Hamlet 극을 실제 상황처럼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Shakespeare의 모든 비극 주인공들의 성격상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야심에 찬 증오”(ambitious hatred)와 “이상적 사랑”(ideal love), “행동과 비행동”(action and inaction), “단순성과 심사숙고”(simplicity and reflection)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잔인성”(cruelty)과 “자애로운 인간성”(humanity)의 요소가 평행선을 이루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Hamlet은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의 극단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Hamlet의 이중성이란 그의 천성이 매우 “사색적”(reflective)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잠시 이러한 Hamlet의 내면에서 겪게되는 갈등의 요인인 이중적인 성격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Claudius를 향한 복수 심리에서 인간성의 부정적인 일면인 “잔인성”과, Gertrude를 포함한 여성에 대하여 갖는 구원의 심리에서 보여주는 “자애로운 인간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Hamlet의 이중적인 심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Hamlet의 천성으로 잠재해 있던 그의 사색적인 성격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머니의 성급한 재혼에 의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후 Hamlet이 유령과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의 진상을 알게 되자, 그는 그의 사색적 천성에다 “정신적 갈등”(mental conflict)을 일으켜 강력한 복수심에서 잔인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완전한 복수”(complete revenge)를 이루기 위한 의도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완전 복수”의 결심 외에, “꾸며낸 광증”과 “극중극”의 세 가지 의도의 논의를 통해 햄릿의 이중적 심리적 태도를 살펴보겠다.

우선, Hamlet의 “완전 복수”를 논할 때면 항상 복수 지연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Hamlet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복수 수행 이후 악한에게 회개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 villain kills my father, and for that
I, his sole son, do this same villain send
To heaven.

Why, this is hire and salary, not revenge. (III.iii. 76-79)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기도를 할 때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가짐을 갖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만일 Hamlet이 기도중인 Claudius를 살해하여 그의 복수를 수행해 버린다면, 죄가 만발한 가운데 참회의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는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 고통받는 반면에, 아버지를 그런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은 살인자 Claudius는 오히려 천당으로 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Hamlet은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하며 복수를 위한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

When he is drunk asleep, or in his rage,
Or in th'incestuous pleasure of his bed,
At game a-swearing, or about some act
That has no relish of salvation in't,
Then trip him, that his heels may kick at heaven
And that his soul may be as damn'd and black
As hell, whereto it goes. (III.iii. 89-95)

즉 Claudius를 당장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두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한 뒤 구원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Hamlet은 Claudius에게 완전한 복수를 위한 잔인함을 보여 준다. 이것이 복수 지연에 대한 Hamlet의 이유다. John Lawlor의 설명에 의하면, 기도중인 Claudius를 죽인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는 Hamlet의 행위는 “진정한 완전 복수자”(a true and complete avenger)¹⁷⁾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Hamlet이 완전 복수를 위해 복수 지연을 한 결과가 Claudius 한 사람만의 응징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복수의 방법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Hamlet 자신의 복수 지연의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무엇이 그를 지연시키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Hamlet 자신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복수지연이 “짐승에게서 보는 망각”(bestial oblivion) 때문인지, 그 결과를 너무 꼼꼼이 따져보는 “겁쟁이의 주저함”(some craven scruple) 때문인지, 결행할 명분과 의지와 힘과 방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다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제4독백에서 밝히고 있다.

Now whether it be
 Bestial oblivion, or some craven scruple
 Of thinking too precisely on th'event—
 A thought which, quarter'd, hath but one part wisdom
 And ever three parts coward—I do not know
 Why yet I live to say this thing's to do,
 Sith I have cause, and will, and strength, and means
 To do't. (IV. iv. 39-46)

17) John Lawlor, *The Tragic Sense in Shakespeare* (London: Chatto & Windus, 1966), p. 75.

지나치게 분석적인 생각이 그의 행동력을 뺏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학자들마다 Hamlet의 복수지연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Hamlet에게는 외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내적인 어려움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감상적인”(sentimental) 입장이다. Hamlet은 지나친 도덕적 감수성(sentimentality) 때문에 아버지의 살해를 복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독일의 Goethe를 중심으로 한 낭만주의자들의 입장이다. 고상하기만 한 왕자 Hamlet에게는 살인 행위를 통한 복수는 아무래도 힘이 벽차기 때문에, 그 일의 수행은 자신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Hamlet이 Claudius, Polonius, Ophelia, Gertrude, Rosencrantz와 Guildenstern 등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냉소주의와 잔인성과 같은 Hamlet의 거친 면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Polonius를 살해하고 난 후, 그의 시체를 향해 말하고 있는 Hamlet은 감상적인 면과는 거리가 먼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Thou wretched, rash, intruding fool, farewell.

I took thee for thy better. Take thy fortune:

Thou find'st to be too busy is some danger. (III. iv. 31-33)

둘째로, Hamlet의 복수지연은 “지나친 명상”(reflection)때문이라는 주장이다. Coleridge, Schlegel, Hazlitt 등이 주장한 것으로, Hamlet은 반성적이고 명상적인 사고가 너무 지나치게 발달한 지성 때문에 행동능력이 마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로는 “이래서 분별심은 우리를 모두 겁쟁이로 만들고 만다. 그리하여 결심이 갖는 천연의 혈색 위에 사색의 창백한 병색이 그늘져 이글이글 타오르던 웅지도 잡념에 사로잡혀 길을 잘못 가고, 결국 실천과는 멀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3독백을 예시하고 있다.

Thus conscience does make cowards of us all,
 And thus the native hue of resolution
 Is sicklied o'er with the pale cast of thought,
 And enterprises of great pitch and moment
 With this regard their currents turn awry
 And lose the name of action. (III. i. 83-88)

또한 제4독백에서 “비겁한 망설임 때문에 일의 결과를 너무 깊이 생각하기 때문일까.”(. . . some craven scruple / Of thinking too precisely on th'event . . . , IV. iv. 40-41)라는 Hamlet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Hamlet의 태도와 관련하여, 사고기능에 불균형이 생기면 인간은 그로 인해 명상만 하게 되고 본래의 행동력은 상실하게 되는데, Hamlet이 Polonius와 Claudius를 살해하는 것과 Ophelia의 무덤에 뛰어드는 행위들은, Hamlet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범하게 되는 “충동적 행동”(impulsive action)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Hamlet은 생각의 수많은 미로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일면 수궁이 가지만 Hamlet의 복수지연에 대한 설명치고는 지나치게 편협한 Hamlet의 성격의 일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

셋째로, Hamlet의 “우울증”(melancholy)이다. A. C. Bradley가 *Shakespearean Tragedy*에서 주장한 것인데, Hamlet은 지나치게 심사숙고하는 습관이 있긴 하지만, 그의 행동력을 빼앗아 버리는 심층적인 우울증으로 빠져들어 가지만 았았다면, 그의 아버지와 약속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의 근친상간적인 재혼, 어머니의 간통, 아버지의 암살 소식은 세심한 감수성의 소유자인 Hamlet을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만들고 죽음을 소망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Hamlet은 도저히 복수의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Bradley의 주장은 상당한 공감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많지만

Hamlet이 가끔씩 나타나는 적극적인 행동력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넷째는 Hamlet의 “이기주의”(egotism)이다. 이것은 앞서 Bradley의 “우울증”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으로서는, Hamlet 왕자는 고상한 마음씨의 소유자도, 예외범절이 뛰어난 지식인도 아닌, 잔인하고 입이 험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self-centered egotist)로서 실제로 혹은 상상으로 공격당할 때까지는 행동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라는 것이다. Hamlet의 복수지연의 이유는 비록 Claudius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위협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즉 Claudius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Hamlet 왕자의 주변 외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철저하게 이기적인 Hamlet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 Hamlet이 신속하게 칼을 뽑아 Polonius를 살해하고, Claudius의 음모를 알기 무섭게 그를 찌르고 독배도 강제로 마시게 하는 행위도 그의 이기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Claudius가 Hamlet을 해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Hamlet도 그를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복수는 영원히 지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너무나 지나치게 Hamlet의 복수지연의 행위를 냉소적으로 비꼬는 설명이지만 매우 흥미 있는 심리적 접근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이상에서 설명한 Hamlet의 복수지연에 대한 이유는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복수지연의 이유를 만족하게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복수 지연을 통한 “완전 복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인 “꾸며낸 광증”이 Hamlet의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E. M. W. Tillyard는 이들 두 가지 의도를 합하여 “햄릿의 정신적 특성”(Hamlet's quality of mind)¹⁸⁾이라고 표현했다. 비록 앞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Hamlet이 의도한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복수를 위한 수단보

18) E. M. W. Tillyard, *Shakespeare's Problem Plays* (London: Chatto & Windus, 1950), p. 28.

다는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발산시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 위장 방법”(conventional disguise for his self-protection from the danger)¹⁹⁾으로써 복수의 장애 요소가 된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Hamlet이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As I perchance hereafter shall think meet

To put an antic disposition on . . . (I.V. 179-80)

이는 Hamlet의 광기가 그의 복수의 의무를 수행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는데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Hamlet이 광기나 복수 지연의 계획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Claudius의 양심에 도전하여 아버지의 살해, 어머니의 근친상간의 결혼, 덴마크의 왕권을 탈취한 천인공노할 죄과를 폭로하려 함이었다. 따라서 “꾸며댄 광증”의 계획은 Hamlet에게 자기에게 부여된 복수의 임무를 실행하고, 광증의 위장을 행동 속에 반드시 동반하여, 복수의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안해 낸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광기 또한, 그 부정적인 측면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복수를 이루기 위해 간접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Hamlet이 고안해 낸 수단이다. 이로써 우리는 Hamlet의 복수 심리의 잔인성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amlet의 Claudius를 향한 복수 심리에서 꼭 언급해야 할 것은 “극중극”(play-in-play)의 의미이다. Hamlet은 “곤자고의 살해”(Murder of Gonzago)의 상연 중에 Claudius의 안색을 살필 것을 Horatio에게 명령하면서 연극 상연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토로한다.

19) John Dover Wilson, *What Happens in Hamlet* (Cambridge: Cambridge Univ. P., 1965), p. 95.

If his occulted guilt
 Do not itself unkennel in one speech,
 It is a damned ghost that we have seen,
 And my imaginations are as foul
 As Vulcan's stithy. Give him heedful note;
 For I mine eyes will rivet to his face,
 And after we will both our judgments join
 In censure of his seeming. (III. II. 80-87)

Hamlet은 유령의 폭로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곤자고의 살해”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지 범죄의 확인 이상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Hamlet은 Claudius를 향한 “완전한 복수”라는 또 하나의 잔혹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Claudius에게 심리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Hamlet은 “극중극”을 구상했던 것이다.

Claudius는 자신의 범죄 사실의 재현을 목격함으로써 불안에 몸서리친다. 여기에서 그는 Hamlet의 광기의 원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Hamlet의 의도는 성공한 것처럼 여겨진다. Claudius가 심중에 느끼고 있는 공포를 생각해 볼 때, 그 공포에 대한 Francis Berry의 분석은 Hamlet이 의도한 바를 잘 설명해 준다.

Dread is a species of fear ; and fear is one of the primal instincts of human lives. Fear is even more fundamental than the instincts of love and aggregation.²⁰⁾

20) Francis Berry, *The Shakespeare Inset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5), p. 120.

이렇듯 Claudius를 극도의 공포와 고립감으로 몸부림치게 한 Hamlet의 의도를 살펴볼 때 그의 잔혹성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Hamlet은 “곤자고의 살해”의 상연 이후, 주어진 복수의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결국 Polonius를 살해하는 실수로 말미암아, 극의 후반을 유혈의 참상으로 물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의도했던 세 가지 의도는,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Claudius의 응징을 이루기는 했지만,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등장 인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비극을 낳고 만 것이다.



Ⅲ. 극복과 화해

Hamlet이 유령에게서 들은 선왕의 독살, 근친상간의 부도덕한 결혼, 거짓 광기의 행동, 복수지연의 고통, 극중극을 통한 살인의 확신 등, 극의 서두에서 부터 지금까지 그가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고뇌하던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풀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련과 고통은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로까지 발전된 상태이다. 여기에서 그는 사랑을 통한 인간성을 추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있다. 우선 Hamlet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자애로운 인간성”(humanity)을 추구하고 있다. 즉 Hamlet은 Claudius를 극도의 불안과 공포 상태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뒤,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하여 복수를 수행하려는 의도 외에도, Gertrude를 불륜과 간음의 침상에서 이끌어 내 예전의 정숙한 여인의 모습을 되찾아 주고자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Hamlet의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사랑에서 우리는 그의 “인간성”의 추구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Ophelia를 포함한 전체 여성과 인간에 대한 구원의 태도로 발전함을 알 수가 있다. 본 장에서는 Gertrude에 대한 햄릿의 효성, 그가 복수 수행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고독, Ophelia의 죽음의 의미, 삶과 죽음에 대한 독백, 그리고 묘지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Hamlet의 “인간성”을 통한 시련의 극복과 화해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Hamlet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논할 때면 앞에서 언급한 “완전 복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한다. 유령이 Hamlet에게 복수 수행의 의무를 부여했을 때, 그는 Gertrude에게는 어떠한 해도 끼쳐서는 안됨을 간곡히 당부 하였었다.

If thou has nature in thee, bear it not,
 Let not the royal bed of Denmark be
 A couch for luxury and damned incest.
 But howsomever thou pursuest this act,
 Taint not thy mind nor let thy soul contrive
 Against thy mother aught. Leave her to heaven,
 And to those thorns that in her bosom lodge
 To prick and sting her. (I . v . 81-88)

이러한 모순된 유령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Gertrude에게는 추호의 가해도 없이 이루어지는 복수라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복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Hamlet의 복수 지연에 대한 심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햄릿은 두 가지의 상반된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야만 하는 상태에서 심한 갈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Gertrude를 어떻게 구출해 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숙고하였었다. 비록 예상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음욕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실망으로 정신적인 괴로움을 감출 수는 없었으나, 우리는 Gertrude를 구하려는 Hamlet의 노력과 그녀를 향한 호성에서, Hamlet의 “인간성”에 대한 태도를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유령의 모순된 명령으로 인하여 Hamlet은 Claudius에 대한 잔혹한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Gertrude가 끝내 Hamlet의 손에 구출되지 못하고 또 하나의 희생물이 되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간성”추구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Hamlet이 Gertrude의 성급한 재혼에서 느낀 것은 그녀의 비윤리성이나 음욕에 대한 욕망을 탓하기보다는 그녀를 포함한 전체 여성의 의지 박약에 대한 비판적인 관념이었다. 즉 Gertrude의 재혼은 Hamlet에게 전체 여성의 “지조 없음”과 나약한 의지에 대한 경멸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것이 비판적 통찰과

회의적인 관념을 심어주어 그의 심리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햄릿이 느낀 실망과 배신감이 단순히 Gertrude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Ophelia를 포함한 전체 여성에 대한 경멸과 혐오의 과정을 거쳐 “인간성”의 차원까지 도달할 수 있었음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Hamlet의 “회개하여 신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원하시면 소자도 와서 어머니의 용서를 기도드리겠습니다.”(And when you are desirous to be blest,/ I’ll blessing beg of you., III. iv. 173-74)라는 말처럼, 그는 어머니를 Claudius의 간음의 침상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했던 것이다.

In the deepest sense therefore he delays the Ghost’s commands. Hamlet’s brutal words to Ophelia in the play scene tells the same tale, for they show him thinking of his mother’s action and of womankind at the very crisis of his dealing with Claudius.²¹⁾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Hamlet이 어머니에 대한 효성의 발로에서 보인 이러한 태도는, Hamlet이 Claudius에게 복수하려는 의도보다 Gertrude에게 동정 어린 모습을 보인 것이, 복수 지연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인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주요 원인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둘이 밀접하게 연관된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Hamlet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공교롭게도 Gertrude의 아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태도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Gertrude는 아들에 대한 모성애로써, Hamlet의 경우와는 다른 “인간적 모성애”(human kindness)를 잘 보여주고 있다. Gertrude는 아들 Hamlet의 심한 “발작증세”(distemper)의 원인 중 자신의 성급한 재혼이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하여 아들의 신변상의 안전을 염려하지만, 그녀는 속수무책일 따름이다. 그녀는 단지 Hamlet의 광기가 가라앉기만을

21) Tillyard, *Shakespeare’s Problem Plays*. p. 23.

바라면서, “열에 들뜬 네 마음이 냉정한 인내심을 되찾도록 해다오.”(Upon the heat and flame of thy distemper/ Sprinkle cool patience, III.iv. 123-24)라고 Hamlet에게 호소하게 된다.

결국 이 비극적인 모자간의 갈등은 상호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갈등의 심리는 서로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Hamlet이 어머니에 대한 효성에서 그의 “인간성”의 추구가 인간성의 부정적인 태도를 부단히 극복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Hamlet의 인간적인 면모와 관련해서, Hamlet이 극 전체를 통해 복수 수행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고독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Shakespeare는 그의 비극적 주인공들 중에서, Hamlet을 가장 고상하고 명상적인 인물로 묘사한 동시에, 또한 가장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인물로 묘사하였다. 어머니는 재혼을 하였고, Ophelia는 Hamlet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Horatio와 진솔한 친구 관계를 이루기에는 둘 사이에 가로놓인 사회적 관습의 장벽이 너무 높았다. 어머니도, 친구도, 연인도 없는 Hamlet은 극히 외로운 상태에서 오히려 주변 인물들로부터 위협적인 염탐만을 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극에는 Hamlet의 고독을 달래 줄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등장한다. 한사람은 중복 Horatio 이고 나머지 또 한사람은 연인 Ophelia이다.

Hor. The same, my lord, and your poor servant ever.

Ham. Sir, my good friend, I'll change that name with you. (I .ii. 162-63)

Hamlet에게 있어 Horatio는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는 아니었으며, 동지나 친구도 될 수 없었다. 따라서 Hamlet과 Horatio 사이의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 극의 종말까지 계속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다. Harley Granville Barker는 “충직하고 성실한 Horatio는 남을 감명시키는 그런 존재이다.”(The faithful watchful presence now becomes as eloquent as any speech.)²²⁾라고 Horatio의 충성심을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다만 훌륭한 학자이며 충실한 신하였지 명석한 충고자나 Hamlet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동지는 될 수 없었다.

Never believe it.

I am more an antique Roman than a Dane.

Here's yet some liquor left. (V. ii. 345-47)

Horatio는 주인인 Hamlet의 뒤를 따라 죽을 각오로 “전 덴마크인의 핏줄이 오나, 정신은 로마인이고자 합니다. 술잔에 아직 독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위와 같은 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Hamlet의 충복임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지만, Hamlet을 도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Horatio가 지녔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즉 Horatio는 Hamlet에게는 작품에 등장하는 유일한 친구였으나, 다만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는 결코 될 수 없었다.

Hamlet이 내면적으로 겪는 고독을 위로해 주었어야 할 인물로 Horatio 외에 Ophelia가 있다. 그러나 Ophelia는 Hamlet의 고독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따라서 Hamlet의 “정신적 갈등”의 동반자가 될 수 없었다. Ophelia 또한 Hamlet의 허무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지혜도 갖추지 못하였고, Hamlet 역시 그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22) Harley Granville-Barker, *Prefaces to Shakespeare, Vol. I* (Princeton: Princeton Univ. P., 1978), p. 201.

이처럼 Ophelia는 Hamlet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의 상대역이 되기에는 내면의 스케일이 작은 인물이었다. 또한 Hamlet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어머니 Gertrude에게서 느낀 여성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곧바로 Ophelia에게 전환된 것이다. 즉 Hamlet은 Gertrude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의 연약함을 Ophelia에게서 느껴야 했으며, 여성 전체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처음의 실망의 감정은 증오와 거부감을 거쳐 동정의 감정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동정이 결국에는 Hamlet의 “인간성”의 추구, 즉 인간 구원의 노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phelia의 죽음이 Hamlet의 “인간성”의 추구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자. Ophelia는 “순수함과 헌신적인 이미지”(the image of innocence and devotion)를 지닌 인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Hamlet은 어머니 Gertrude에게서 느낀 것과 똑같은 연약함을 그녀에게서도 느낀다. 그래서 Ophelia를 매춘부로 취급한다.

Get thee to a nunnery. Why, wouldst thou be a
 breeder of sinners? I am myself indifferent honest,
 but yet I could accuse me of such things that it were
 better my mother had not borne me. I am very
 proud, revengeful, ambitious, with more offences at
 my beck than I have thoughts to put them in, im-
 agination to give them shape, or time to act them in.
 What should such fellows as I do crawling between
 earth and heaven? We are arrant knaves all, believe
 none of us. Go thy ways to a nunnery.

Where's your father?

(III. i. 121-31)

따라서 Hamlet에게 Ophelia는 역시 연약함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Polonius

의 계략에 이용된 미끼에 불과한 인물이었다. Hamlet 자신에게 어머니의 몫까지 기대했던 Ophelia가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자기의 몫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은 그녀 자신의 성격과 행동의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과 결함하여 Hamlet의 발작적인 광란적 행동이 Ophelia의 죽음을 예기치 않게 가속화시킨 결과를 낳고 말았다.

Ophelia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Hamlet의 “정신적 갈등”(mental conflict)도 종말을 향해 치닫게 된다. 즉, 그녀의 죽음은 Hamlet에게 실망, 증오, 허무의 감정을 깨끗이 청산하고, 사랑과 구원에 대한 욕구를 정리하여 홀가분한 마음으로 복수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 준다.

Hamlet극에서 Ophelia가 등장 인물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Hamlet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만한 능력을 그녀가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자질 부족과 이에 따른 Hamlet의 냉대와 멸시와 광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Ophelia는 그녀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연인 Hamlet의 광포한 변모와 그의 손에 부친이 죽임을 당하고 오빠 Laertes마저 그녀의 곁에 있어주지 못 했다. 그렇기 때문에 Ophelia는 위로를 받고 의지할 만한 상대가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그녀의 죽음은 불가피했다.

그렇지만 Hamlet에게는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 넣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Hamlet은 “나는 Ophelia를 사랑했다. 몇 만 명의 오라비들의 사랑을 모아 봐도 나의 사랑하는 마음과 비길 수 없을 거다. 네 따위가 Ophelia를 어쩔 셈이냐?”라는 Hamlet의 심경 고백에서, 그가 Ophelia를 그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랑했으며, 그녀의 사랑을 갈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Hamlet이 받은 것이라고는 커다란 아쉬움과 깊은 실망뿐이었다.

I love'd Ophelia. Forty thousand brothers
Could not with all their quantity of love

Make up my sum. What wilt thou do for her? (V.i. 264-66)

Hamlet이 Gertrude나 Ophelia에게 나타낸 증오와 멸시의 태도는 그들로부터 연약함을 제거하려는 강렬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Hamlet의 구원의 태도는 특정인을 구원하겠다는 집념이나,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는 단순한 의지가 아니다. 이는 사랑하는 두 여인을 포함한 전체 여성에게서 연약함을 제거함과 동시에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Hamlet의 바램의 소산으로 여겨야 한다.

결국 Ophelia를 죽음으로 희생시키고 Gertrude를 고통의 가시밭길에서 헤매게 한 Hamlet의 행동은, 그들에 대한 고상하고 강렬한 사랑의 정신에서 출발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Hamlet의 사랑의 감정은 증오와 동정의 감정과 병행하면서, 마침내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고 인간성의 회복을 갈구하는 그의 “인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Hamlet의 심리의 이중성, 즉 그의 모든 증오와 사랑의 정신은 결국 한군데로 모여 깊은 관조의 경지에 들어가, 삶에 대한 번뇌와 죽음에 대한 동경 등 “생과 사”(life and death)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Hamlet의 이러한 관조는, 이 극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중성”의 주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Hamlet이 기도중인 Claudius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내세를 믿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번뇌 속에서 자살을 염두에 두고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사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것은 “생과 사”에 대해 숙고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음을 중심으로 한 Hamlet의 번뇌와 심사숙고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이중성의 의미를 깨달음과 동시에,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Hamlet의 시련의 극복과 화해의 과정을, “독백장면”과 “묘지의 장면”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Shakespeare의 4대 비극에 나오는 Othello를 비롯하여 Macbeth, King Lear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Hamlet은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에서 아주 중대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모두 죽음이란 망각에서 오는 “무”(nothingness)를 초래하는 이상의 것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죽는 순간까지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다. 단순히 보면, Hamlet 역시 죽음이란 모든 생의 감정과 고뇌의 종말일 뿐이라는 그들과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Hamlet은 “죽음의 상태”(being dead)에 대한 생각과 삶 중심의 “죽음은 끝”의 사상이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들과 매우 상반되고 있다.

Hamlet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고 있었다는 것은 Claudius를 향한 “완전 복수”의 계획에서 잘 나타나 있다. Hamlet이 기도 중인 Claudius를 죽이지 않고 그가 죄의 한가운데 있을 때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던 행동은, 유령에게 부여받은 복수의 의무를 수행하고 난 뒤, Claudius에게 다가올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여, 기도중의 순결한 마음 상태인 Claudius가 천당으로 가게 될 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Hamlet의 마음 상태는 “전복수”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 즉 Hamlet은 “죽음의 상태”에 대한 진지하고도 사려 깊은 철학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Hamlet이 단순히 완전 복수를 위한 내세관만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작품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고뇌하고 숙고하는 그의 모습에서 명쾌히 설명되고 있다. 우리는 Hamlet이 극의 중간 중간에서 토로하는 독백장면에서, 그의 심사숙고하는 모습과 철학적 고뇌를 엿볼 수 있다. 즉 Hamlet의 독백은 단순한 자신의 감정 고백이라기보다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Hamlet의 모든 행동이나 사상이, 그의 사려 깊은 통찰력의 예지와 신중한 본성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Hamlet은 그의 독백에서 “정열과 행동의 수수께끼”(riddles of passion and

action)²³를 풀어 보려는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열과 행동의 수수께끼”는 이제까지 언급한 것처럼, 생의 세계와 사후의 세계를 함께 받아들이는 사상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서 Hamlet은 몇 가지 이중적인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Hamlet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being or non-being)하는 생존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로, 복수를 수행할 것이냐, 모든 고뇌를 참고 견디어 나가느냐 하는, 죽음 전과 후의 세계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문제점에 깊이 몰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련과 고뇌만을 겪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행동에 직접 임해야 할 것이냐, 즉 견디며 살 것이냐, 죽이고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고뇌하고 있다. 따라서 Hamlet의 이 유명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독백은 Hamlet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의 결정체라고 확신할 수 있다.

Hamlet은 또한 제 3독백에서 삶과 죽음의 대조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관조뿐만 아니라, 어둠과 절망(darkness and despair), 희망의 밝음과 생의 죽음(brightness in hope and death in life), 파멸과 구원(destruction and salvation)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실과 내세의 동시 인정 여부가 Hamlet의 갈등의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이다.

Hamlet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그가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는 점점 더 큰 공포에 휩싸여 고뇌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Hamlet에게 죽음의 공포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된다. 만약 Hamlet에게 그러한 공포와 내세관이 없었더라면, “죽음은 갈망되어질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Death would be conceived to be desirable.)²⁴라는 결론아래 복수자연이나 철학적 관조 같은 복잡 미묘한 문제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Hamlet이 심리적 갈등과 시련의 고통을 통해서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결정

23) Ruth Nevo, *Tragic Form in Shakespeare* (Princeton: Princeton Univ. P., 1969), p. 173.

24) Nevo, p. 173.

적인 장면은 5막의 “묘지장면”이다. 영국으로 가던 도중에 해적선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Hamlet이 처음으로 직면하는 5막의 “묘지의 장면”은 죽음을 통한 구원과 화해의 길을 여는 중요한 상징적 모티브가 되고 있다. Yorick의 해골을 들고 명상에 잠긴 Hamlet의 모습은 Shakespeare가 만들어낸 수많은 영상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인상을 자아내게 한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에 널리 알려져 있는 “죽음의 경고”의 상징적인 한 장면이다. 또한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한 Yorick의 해골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죽음의 현실을 절실히 깨닫고 나서, 삶과 죽음을 동일시하는 차원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Hamlet은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도덕적 질서를 재인식하고, 또한 자신의 죽음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죽음이라는, 영원한 인간 현실을 같은 차원에서 통찰하고 관조하고 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로서는 정신적으로 한층 더 높은 차원에 이르는 순간인 것이다.

이러한 묘지의 장면에서 Hamlet의 명상은 극의 초반의 불안정한 태도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보이는 안정되고 확신하는 태도로의 변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Hamlet이 우주의 보편적인 질서를 인식하고 이에 복종하고 수용함으로써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그 해답이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인간 세상에서 그가 처해 있는 현실과 그 역할을 수용하고, 삶의 고통 때문에 위축되거나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해야할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는 Ophelia의 장례식에 홀연히 나타나 “나는 덴마크의 햄릿이다.”(This is I, Hamlet the Dane, V. i. 251)라고 외친다. 그는 자신이 “이 고장 사람”(native here)일뿐만 아니라 “덴마크”라는 지금까지는 Claudius에게만 사용되던 왕을 상징하는 칭호를 스스로 직접 사용하고, 그 전까지는 감옥으로 부패한 국가로 치부하던 조국을 자신의 왕국으로 주장하게 된다. 또한 지금은 이를 수 없게 되었지만, Ophelia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만인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Hamlet은 거의 상실했던 자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I love'd Ophelia. Forty thousand brothers
 Could not with all their quantity of love
 Make up my sum. (V. i. 263-65)

묘지장면에서 등장하는 묘지기 광대도 Hamlet으로 하여금 인간과 죽음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묘지기 광대들은 누구의 묘를 파고 있는지,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전혀 의식하거나 상관하지 않는 철저한 무관심과 무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내던지는 해골이 생전의 정치가의 것이든,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아양과 아침을 떨던 궁전의 여인의 것이든, Caesar나 Alexander 대왕의 것이든 그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마치 *Macbeth*에 나오는 Porter가 Duncan왕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성문의 노크소리에 대응하는 행위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종말을 상징하는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가운데, 인간은 모두가 죽는 것이고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인간 운명의 보편적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Hamlet은 Polonius 살해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기 위해 죽음을 수용한 다음에야, 최후의 운명과 직면할 정신적 자세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는 검술 시합을 연기하라는 Horatio의 말에 대한 대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Not a whit. We defy augury. There is special providence
 in the fall of a sparrow. If it be now, 'tis not to
 come; If it be not to come, it will be now; if it be not
 now, yet it will come. The readiness is all. (V. ii. 215-18)

이러한 Hamlet의 태도는 인간 현실을 초월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일에는 기

회가 있는 만큼, 이를 하늘의 섭리에 맡기겠다는 체념과 달관의 경지에 이른 Hamlet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복수라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보다는 덴마크 사회 전체의 도덕적 질서 회복을 위해 하늘의 섭리에 따라 Claudius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Horatio에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Does it not, think thee, stand me now upon—
 He that hath kill'd my king and whor'd my mother,
 Popp'd in between th'election and my hopes,
 Thrown out his angel for my proper life
 And with such coz'nage—is't not perfect conscience
 To quit him with this arm? And is't not to be damn'd
 To let this canker of our nature come
 In further evil? (V. ii. 63-70)

Hamlet이 마지막 장면에서 Laertes와의 검술시합에 나갈 때에는, 벌을 가할 자와 벌을 받을 자라는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역할을 갖게 되며, 또한 이러한 상반된 역할을 하늘의 섭리로 인식하고 수용한다. 이와 같은 한 인간의 이중적인 역할은 우리의 인간 현실의 이중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지금까지 Hamlet의 독백을 통해 그의 이중심리의 충돌이 어떤 철학적 관조를 이루게 되었고, “묘지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과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Hamlet의 삶과 죽음에 대한 번뇌, 죽음의 동경, 현세와 내세 사이의 갈등, 인간 존재에 대한 관념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일반적 측면으로 객관화되어 감으로써, 종국에 가서는 Hamlet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인간사를 지배하는 우주적 질서에 순응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Hamlet의 진정한 인간적 고뇌와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Shakespeare의

비극적 인물 가운데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IV. 결 론

인간의 삶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갈등관계를 자아내는 사랑과 증오, 선과 악, 관대함과 잔인함 등 인간성의 대립요소들은, 비극의 주인공 Hamlet으로 하여금 부친이 요구하는 복수결행을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수많은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성은 어느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덴마크 왕자로서의 Hamlet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벗어나서 보편적인 인간운명으로까지, 의미확대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위대성을 운위할 수 있는 것이다. Hamlet이 겪는 심리적인 갈등과정을, 보편적인 인간성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덴마크 왕자 Hamlet이 안고 있는 갈등문제는, 다만 그 강도와 양상만을 달리 할 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류보편의 문제라는 관점이다. 일국의 왕실에서 최고의 권좌를 차지하도록 태어난 그는 도덕적으로 병든 조국을 치유하고 정의로운 국가질서를 회복시켜야하는 막중한 의무가 지워졌을 때,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 대해 저주한다. 그래서 Hamlet은 “지금은 온통 꼬이고 휘어진 어지러운 세상 /오 저주받을 운명이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가 태어나다니!”(The time is out of joint. O cursed spite,/ That 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I.v. 196-97)라는 Hamlet의 한탄은, 보는 이의 동정과 측은함을 자아낸다. 물론, 그가 당면해 있는 고통스러운 운명은, 그가 처해 있는 시간적·공간적 특수 환경에서 나온 특수한 문제이지만, 시공적인 특수 환경에서 배태한 개별적인 사건이면서도 그것이 지니는 비극적인 박진감으로 인하여 보편적인 인간운명에 내재한 비극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Hamlet의 비극적인 성격 특성이 부친살해에 대한 복수 결행을 가로막

고 연쇄적인 불행을 초래했다고 하지만, 그의 독특한 성격은 바로 위대한 지도자의 모범적인 특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비극의 의미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유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완전복수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날카로운 지성과 준엄한 도덕성의 소유자인 Hamlet은, 복수의 신속 과감한 결행보다는 복수의 타당성과 도덕성을 먼저 숙고하게 됨으로써, 복수지연과 이에 따른 겉가지 불행들을 파생케 하는 것이다. 물론, 행동력을 약화시키는 성격적 요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한 인간 또는 한 작품의 비극성을 형성하기에 족하다 하겠지만, 그러한 비극적 성격이란 것이 행동추진 과정에서 완벽한 논리와 철저한 성실성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성격 특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작품의 비극성을 더욱 장중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개인적인 복수의 행동을 초월한 삶과 죽음이라는 철학적인 고뇌와 심사숙고가 의무 수행의 방해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Hamlet이 5막에 들어서 자기 각성의 단계를 거쳐 삶을 포용하고 “신의 섭리”(divine Providence)를 깨달아 복종함으로써,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중적인 요소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최종적인 복수 결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Hamlet은 Claudius에게 보인 경멸과 냉대의 심리를 극복하여, 간음의 세계로부터 어머니를 구출하고 사회악으로부터 덴마크를 구출하려는 구원의 태도를 동시에 견지함으로써, 참된 인간성 회복을 추구한 보편적인 구원의 의지를 실천에 옮겼다.

Hamlet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비극적인 희생물로 제단에 바치면서도, 자기로 말미암아 희생된 주변의 인물(Gertrude, Ophelia, Polonius, Laertes)들에 대하여 지녔던 증오의 감정을 동정의 감정으로 승화시켜, 그들의 죽음 이후나마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참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는 구원의 태도를 지향하였다. Hamlet 자신은 생에 대한 비관적 관념과, 삶을 저버리고 죽음을 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모순된 관념과 내세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기는 했다. 하지만 그의 고뇌에 찬 “사

색적인 성격”에 의한 정신적인 고뇌와 갈등의 과정을 거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수립할 수 있었다.

사실 Hamlet이 좀 더 일찍 철학적 통찰과 관조에 도달하였다면, 무고한 인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적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극이 갖는 이중적 요소의 대립과 갈등은, 빛과 어둠이 교묘하게 어우러진 이미지리를 통하여, 각 등장 인물들의 성격과 역할, 인물들 간의 갈등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지극히 주관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Hamlet이 주관적이며 냉소적 시각으로 주변 생활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이중적 요소들이 긴밀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지만, 5막 이후부터 Hamlet의 시각이 삶과 죽음의 달관의 경지에 어느 정도 다다르고 나서부터는, 대립의 양상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중적인 두 세계가 공존하여 우열을 겨루는 이 극은, Hamlet이 어둠과 죽음의 세력과의 대립이라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진실, 사랑, 영원한 삶의 의미를 쟁취하여 진리의 사도와도 같은 귀감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시대에나 항상 존재해 왔던 빛과 어둠의 이미지리를 올바르게 파악한 바탕에서, 삶의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화해하는 귀감이 될만한 삶을 구현하고 있다. 비록 이 작품이 선과 악, 외양과 실재, 현실과 이상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별해 내야하는 막중한 부담을,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과 비평가들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이중적 갈등을 극복해 내는 Hamlet의 모습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Hamlet의 장렬한 죽음을 초래했던 끝없는 고뇌와 시련은, 인간의 삶의 본질로서의 갈등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였다. 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보여주는 정의의 최종적인 실현은, 이 비극적인 주인공이 안고 있던 대립과 갈등의 해소 가능성을 믿게 하지만, 그 동안의 대가와 희생은 실로 막대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Hamlet이 비록 자신의 죽음을 자초하고 수많은 주변인물들의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지만, 이들의 죽음과 불행의 불가피성을, 보편적인 인간성의 차원에서 음미하게 하고 화해의 미래를 바라

보게 한다는 점에서, 고뇌에 찬 삶의 투쟁에서의 진정한 승리자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I . Text:

Shakespeare, William. *Hamlet: The Arden Shakespeare*. Ed. Harold Jenkins. London: Methuen, 1982.

II . References:

Berry, Francis. *The Shakespeare Insets*. London: Routledge, 1965.

Bradley, A.C.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acmillan, 1974.

Danziger, Marlies K. & Johnson, W. Stacy. ed. *An Introduction to Literary Criticism*. Boston: D. C. Heath & Co., 1968.

Dowden, Edward. *Shakespea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London: Routledge, 1967.

Granville-Barker, H. *Prefaces to Shakespeare, Vol. I*. Princeton: Princeton Univ. P., 1978

Hoy, Cyrus. ed. *Hamlet*. New York: W. W. Norton & Co., 1963.

Jump, John. ed. *Hamlet*. London: Macmillan, 1970.

Knight, G. Wilson. *The Sovereign Flower: On Shakespeare as the Poet of Royalism Together with Related Essays and Indexes to Earlier Volume*. London: Methuen, 1958.

Knights, L.C. *Some Shakespearean Theme*. London: Chatto & Windus, 1959.

- Lawlor, John. *The Tragic Sense in Shakespeare*. London: Chatto & Windus, 1966.
- Nevo, Ruth. *Tragic Form in Shakespeare*. Princeton: Princeton Univ. P., 1969.
- Rabkin, Norman. *Shakespeare and the Common Understanding*. New York: The Free P., 1967.
- Ribner, Irving. *Patterns in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ethuen, 1960.
- Speaight, Robert. *Nature in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Collier Books, 1955.
- Spurgeon, Caroline F. *Shakespeare's Imagery and What It Tells Us*. Cambridge: Cambridge Univ. P., 1961.
- Tillyard, E.M.W. *Shakespeare's Problem Plays*. London: Chatto & Windus, 1950.
- Wilson, J. Dover. *The Essential Shakespeare*. Cambridge: Cambridge Univ. P., 1964.
- . *What Happens in Hamlet*. Cambridge: Cambridge Univ. P., 1965.



<Abstract>

Conflict and Reconciliation of Opposing Forces in *Hamlet*

Kim, Young-Bin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Young-Soo

To catch the truth of life presented in Shakespearean Plays is to find out the real facts of their characters' conflict and grasp the real meaning of it. In *Hamlet*, the interwoven conflict between Hamlet and other characters lead to many complicated problems.

In this thesis, first, the conflicts and sufferings between Hamlet and other characters are being analyzed through the imagery of "light and darkness." Light symbolizes good and truth and darkness stands for evil and falsehood in *Hamlet*. Light and darkness are being treacherously revealed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Secondly, characteristically dual structure which is revealed through the human relationship between Hamlet and other characters is being surveyed in connection with the imagery of light and darkness. The analysis makes us pay close attention to "appearance and reality" of Hamlet and other cha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9.

racters. Hamlet stands for the world of light while the world of darkness is represented by the intriguers surrounding Hamlet. Those two intermingled worlds are making the dual structure. Hamlet's psychological state reveals double structure. Internally, Hamlet has the grasp of noble character and a strong sense of justice. On the other hand, externally, he pretends to be ignorant of the real facts, hates other characters and puts on an antic disposition. And so, Hamlet makes both the imagery of light and that of darkness. Hamlet's task to avenge the death of his father appears to be simple and easy, but the reflective character of Hamlet who seeks after sound logic and thorough sincerity causes a series of problems such as fear of death and the agonies of life, respect and hatred for parents, the love entanglement, trust and betrayal represented in the ruler and the ruled, the anguishes of true friendship, etc.

In conclusion, the process of Hamlet's solution to all the problems seems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finding light in the heart of darkness. Hamlet endures the hard course of heavy agonies of life, overcomes a chaotic confusion of moral values, confirms the potential power of justice at the sacrifice of himself and encourages us to live in hope for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of the future.